

# NBA, 내년 프리시즌 아시아 전역 확대 개최 유력

NBA(미국 프로농구)가 시범경기 개최지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농구전문매체 '바스켓코리아' (basketkorea.com)에 따르면, NBA는 2019-2020 시즌 프리시즌을 중국, 인도, 일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 것으로 보인다. NBA는 최근 수 년 동안 시범경기를 중국에서 개최했다. 여기에 인도, 일본,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포함해 4개국으로 늘리면서 아시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미 중국 시장은 NBA가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중국은 NBA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 시장이다. NBA는 해마다 두 경기씩 중국에서 치르고 있다. 특정 두 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에서 두 번의 맞대결을 펼치며 현지 팬들을 사로잡은 지 오래다. NB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인도와 일본은 물론 아랍에미리트까지 노리고 있다.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까지 NBA 경기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정규시즌 경기를 12경기나 유치한 바 있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일본에서 정규시즌 경기가 열렸으며, 1996

년, 1999년, 2003년을 끝으로 더 이상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 일본에서 내년에 시범경기가 열리게 되면, 일본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NBA와 마주하게 된다.

이전처럼 정규시즌은 아니지만, 프리시즌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일본의 농구인기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일본은 2023 농구 월드컵 개최국이다. 지난 2006년에 농구 월드컵을 한 차례 개최한 바 있는 일본은 2023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함께 개최한다. 농구 월드컵 개최에 앞서 NBA 프리시즌 경기를 열게 되면서 농구에 대한 일본의 입지는 보다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NBA는 애덤 실버 커미셔너 부임 이후 꾸준히 미국 외의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전임 데이비드 스톤 커미셔너가 재직할 때만큼 여러 대륙에 진출하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시장 점검을 통해 영국, 멕시코와 밀착해 있다.

영국과 멕시코는 해마다 정규시즌 경기를 유치하고 있다. 중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범경기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는 중국 못지않은 큰 시장이다. 비록 농구에 대한 열기는 크지 않지만, NBA가 꾸준히 공을 들일 만한 곳이다.

## “오승환 영입은 신의 한 수”

오승환(36·콜로라도) 트레이드가 신의 한 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도 오승환의 올 시즌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텐버 지역 매체 텐버 포스트는 10일 “트레이드 마감시한을 앞두고 오승환을 영입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오승환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한 뒤 지난 7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었다. 트레이드 당시에는 우려도 많았다. 콜로라도의 홈구장이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 필드였기 때문. 하지만 오승환은 자신의 몫을 다 했다.

콜로라도는 시즌 중반까지 불펜진이 제 몫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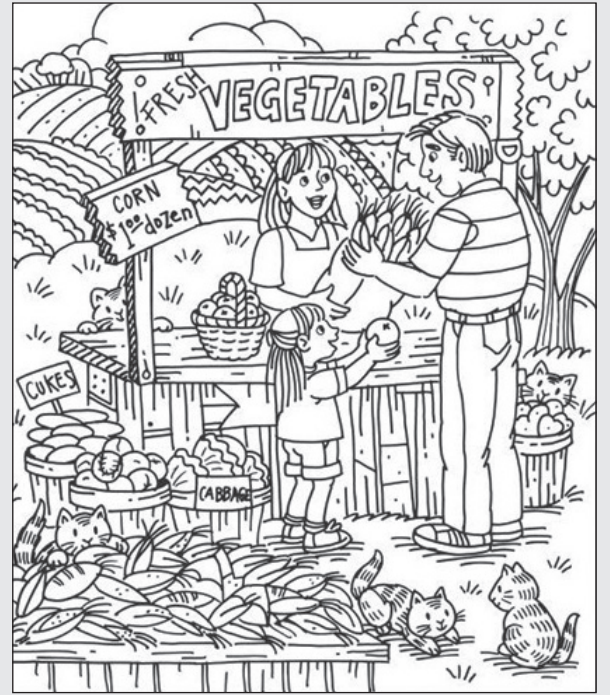
못하며 고전했다. 그러나 오승환이 트레이드로 합류한 것을 기점으로 불펜이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시즌 막판 상승세를 탔고, 결국 디비전시리즈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통계전문사이트 '베이스볼레퍼런스'에 따르면 오승환은 올해 총 2.3의 대체선수대비 승리 기여도(WAR)를 기록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0.8을 쌓았다.

비록 유망주 세 명을 내주기는 했으나 팀 상위권 선수수는 아니었고, 올해 연봉의 50만 달러 정도만 지출한 상황에서 높은 이득을 준 것이다.

오승환은 베스팅 옵션 실행 기준을 만족해, 2019 시즌에도 콜로라도에서 뛴다. 연봉은 250만 달러를 받는다.

## 숨은그림찾기



© 위 그림에서 아래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해답은 P42)



이미지 출처: http://kimoci.tistory.com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맞는 융자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김주용 (Jay Kim)**

중앙일보 주택융자 강의  
Passkey MLO Review 공동저서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A Financial (dba Lending Plus)  
kimjy9855@gmail.com

NMLS#1560314

1. 일반 주택융자
2. 재융자: Cash out 재융자, 이자율/기간 조정 재융자
3. 정부 주택융자: FHA, VA 융자, 리버스 모기지 등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문의도 환영합니다**

**213.332.1718**

3450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CA 90010